

하이엔드 세계에 펼쳐지는 또 하나의 찬란한 서광

Lumenwhite

WhiteLight / WhiteFlame

정확도와 순수성을 극대화한 레퍼런스 사운드를 위해 개발된 루멘 화이트의 스피커 시스템.

그토록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평가들은 과연 사실일까. 3년여만에 국내에 소개되는 하이엔드 스피커를 소개한다. 글 | 최윤호

하얀 빛에 의미를 부여해 보자. 빛은 다양한 종류의 파장을 지닌 무지개빛들이 모여 소위 가시광선이라는 일상적인 빛을 만들어낸다. 즉, 빛은 단순한 가시광 또는 백색광이라고 불리우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이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정확히 하나로 흡수되어야만 순수한 빛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Hartmut Roemer는 이러한 백색광에 담긴 의미를 빛이 아닌 사운드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스피커는 단순히 전기적인 신호를 소리로 내주지만, 그 소리 속에는 수 많은 주파수들의 음과 그 하모닉스가 모여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순수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며 사운드에 대해 보다 정확성과 순수성을 강조하여 탄생된 루멘 화이트(Lumen White)의 스피커는 기존 스피커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음과 음의 순수성이라는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새로운 하이엔드 스피커의 탄생을 가져왔다.

루멘 화이트의 첫 작품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01년이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전세계의 많은 하이파이 매거진들에서 극찬의 평가를 받아왔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발표된 지 4년이 지나서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미 유명

한 오디오 상들을 한번씩 수상했던 스피커는 철저히 유럽제 스피커다운 디자인과 내용물을 담고, 유럽 이곳저곳을 오가며 완성된 스피커이다. 루멘 화이트가 스피커 제작을 위해 탄생된 것은 지난 1997년의 일이다. 회사의 정확한 이름은 루멘 화이트 리서치 그룹(Lumen White Research Group). 회사가 개설된 곳은 영국 런던이며, 스피커가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곳은 오스트리아이다.

또한 회사의 창시자이자 개발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하르무트 뢰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며 루멘 화이트의 스피커들은 철저히 독일제 드라이버 유닛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인클로저 소재 역시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구할 수 있는 독특한 소재의 나무복합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면 오스트리아나 영국의 스피커가 아닌 유럽 유니언의 스피커라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루멘 화이트에서 내놓은 스피커 시스템은 지금까지 딱 두 제품이다. 루멘 화이트의 최고 모델인 White Light 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작아진 White Flame이 그것이다. 두 스피커 모두 동일한 소재와 동일한 설계기법 그리고 동일한 마감으로 제작되지만, 그 크기만이 다를 뿐이다.

과연 루멘 화이트가 그렇게 대단하게 언급될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에 대해 조금씩 궁금증을 벗겨보기로 하자.



스피커 개발의 발단은 주재자의 사운드 레코딩에서 시작되었다. 녹음을 위한 뛰어난 레퍼런스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하여, 몇 가지 스피커들을 검토해보았지만 그가 얻은 결론은 순수한 음과 사실적인 음을 들려주는 스피커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투명도가 부족하고 경계된 음이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유를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공진과 댐핑 소재들에 의한 음의 흡수를 원인으로 찾았다. 즉, 음의 시간축이 정확하지 못하고 위상이 부자연스러운 음을 피해서이고 결과적으로 음악의 감정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직접 스피커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렇게 루멘 화이트 리서치 그룹이 탄생된 것이다.

문제점들에 대한 최종 답안은 자연스러운 음에서 찾았다. 즉, 소리가 재생되는 최종 출구에 어떠한 스트레스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음의 발산으로 이상적인 사운드를 실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루멘 화이트의 테마는 Coherence(정합)였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일치되어 음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인클로저, 드라이브 유닛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White Light

방식 3웨이 제트벨브형
우퍼 178mm 세라믹 역동형
미드레인지 89mm 세라믹 역동형
트위터 25mm 세라믹 역동형
(음선 25mm 다이아몬드)
임피던스 4ohm
감도 91.5db/2.83v/1m
크기 (hwd) 1180×290×620
무게 52kg

White Flame

방식 3웨이 제트벨브형
우퍼 127mm 세라믹 역동형
미드레인지 89mm 세라믹 역동형
트위터 25mm 세라믹 역동형
(음선 25mm 다이아몬드)
임피던스 6ohm
감도 91db/2.83v/1m
크기 (hwd) 1050×260×510
무게 32kg

수입원 : D.S.T. Korea 102-719-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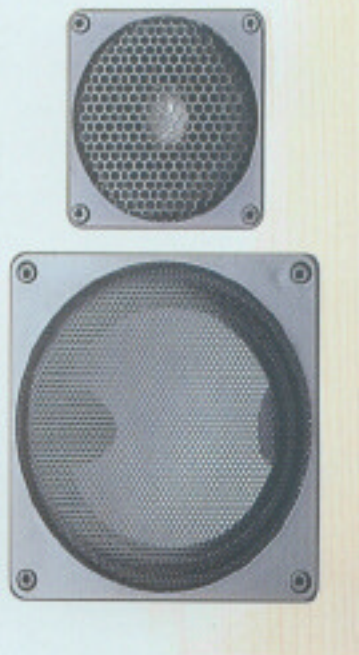
일명 피드백에서 기발한 세라믹 역동성 무리 진동만 자질미 두께가 무려 150um에 불과하다 (대체 단단하고 심후에 대한 반응이 빠른 무리 음질은 뛰어나지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발음을 결정하는 드라이브 유닛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기 위하여 세라믹 소재의 유닛을 전 대역에 사용하였다.

독일의 일렉 파트너(미국에서는 어큐톤이라 부른다)계의 세라믹 유닛은 대단히 높은 경도와 아주 낮은 질량으로 신호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빠르고 민감하여, 자칫 잘못 다루면 곧잘 깨지기도 한다. 트위터에서 미드레인지, 우퍼에 따라 진동판의 두께가 조금씩 다르며(트위터가 가장 얇고 우퍼가 제일 두껍다),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시간과 위상의 일치를 이루도록 사용하였다. 플래그십인 White Light나 주니어인 White Flame 모두 동일한 유닛을 사용하지만, 우퍼는 White Light가 6.5인치이며, White Flame이 5인치 유닛을 쓴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약간의 개선의 소재를 위해 옵션을 남겨놓았다.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세라믹 트위터로 셋업되어 있지만,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다이아몬드 트위터로 바꿀 수 있다.

이미 Avalon Acoustics의 Eidolon 등에서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장착하는 것이다. 세라믹보다 더 단단하고 빠른 다이아몬드는 40kHz의 재생 대역을 대단히 순간 가속력으로 100kHz까지 드라이브 해낸다.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우퍼 무리과 동일한 일명 피드백의 세라믹 드라이브 유닛들이다. 소재는 모두 같은 세라믹이지만, 트위터는 50um, 미드레인지는 100um에 (4개에 따라 소재의 두께가 다르다)가 된다. (2개의 트위터는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옵션 사양으로 별도 주문 되어 세팅에서 가장 빠른 응답도 높은 음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이테크 소재의 드라이브 유닛이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클로저에는 무언 화이트만의 독특한 기법들이 추가되었다. 먼저 인클로저 소재는 가장 대중적인 MDF 소재를 버리고, Plywood라는 적층형 나무판을 도입하였다. 다양한 재질의 나무판을 얇은 레이어로 만들어 다층구조로 된 한층 한층 쌓아올려 독특한 저음이 형성되게 만든 이 소재는 단단한 경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무 소재의 레이어를 쌓



Lumen White의 스피커를 위해 사용된 Plywood의 단면 사진. MDF와 같은 일반적인 인공적 나무 소재가 아닌 각기 다른 재질을 적층구조로 제작한 고급스런 천연 나무 소재 고도의 가공 처리를 통해 유닛형으로 성형하여, 내외 개성음을 제작하는 데 한 걸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아울러, 특정 주파수가 아닌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을 분산함으로써 공진현상에 대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독특한 점은 인클로저의 디자인이다. 이제는 흔해졌지만, 무언 화이트 역시 유선형의 굴곡진 인클로저로 설계되었다.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스피커들이 주장했던 음의 불필요한 복사를 줄이고 스피커 내부에서 발생된 반사음을 줄여서 드라이브 유닛의 발음을 보다 명확히 개선시켜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특한 점은 인클로저 내부에 댐핑 소재가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음을 흡수하는 흡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반향음을 컨트롤하고 있다. 또한, 퍼포스피드를 위해 대구경 우퍼 대신 3개의 작은 우퍼를 사용함으로써 생긴 저역의 양적인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인클로저에 제트멤브라는 포드를 설계하였다. 통상적인 원형 파이프 모양의 구멍이 아닌 세로로 긴 슬릿 모양의 포드로서 저역의 밸런스를 교묘히 맞추어 위화감 없는 깨끗하고 빠르지만 탄력넘치는 저음을 창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면 패널에는 약간의 각도를 주어 시간축 일치를 맞추도록 했다.

최대한 자연스런 흐름을 유지한다는 의도를 살리기 위해 3웨이를 위한 네트워크 또한 고급 부품에 의한 아주 단순한 필터로 제작했다. 180Hz와 4kHz의 크로스오버에는 딱 7개의 부품만이 투입되었고 모두 고급 오디오 전용 부품들이다.

이런 다양한 시도와 특유의 고난도 인클로저 제작기법으로 인해 1초의 스피커를 주문해서 받으려면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도 주문이 밀려 있어 제품수급에 있어서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움과 스트레스 없는 극도의 신호 재생에 도전한 결과물은 어떤 소리일까?

개인적으로 루멘 화이트의 스피커는 두 번 시청할 기회를 가졌다. 처음으로 만났던 것은 일본의 전시장이었고 White Light를 FM Acoustics의 분리형 앰프가 울리고 있었다. 또 한번의 기회는 국내의 시청실에서 White Light와 White Flame를 Gryphon의 분리형 앰프로 시청할 수 있었다. 두 번의 대면에서 느낀 루멘 화이트의 사운드는 한마디로 깨끗하다는 것이다. 회사의 이름이나 제품명 만큼이나 대단히 깨끗하고 순수한 음을 구사한다.

전반적인 음색은 매우 중립적이다. 흔히 팔감으로 승부하는 스피커들처럼 기쁨지거나 자기 색을 화려하게 강조하지도 않는다. 또한 초고속 스피드를 자랑하는 라남극일기를 싸야할 만큼 차갑거나 시리지도 않다. 보다 정확한 것들을 들이낸다면 약간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밝기에 있어서는 전혀 밝은 감각을 찾아보기 어렵다. 흔히 한기가 높으면 귀가 시리고 눈부신 사운드로 착우치는 경향이 많지만, 루멘 화이트의 스피커들은 전혀 오버톤의 밝기는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회색빛의 음영감이 약간 드러워 있어 음색과 밝기를 안정되게 잡아준다. 사운드 스테이지는 대단히 투명하고 길고 입체적이다. 약간의 한기에서 눈치챌 수 있었겠지만, 정말로 넓고 투명한 공간감은 녹음현장의 공기감이나 공간의 물리적인 음향 뉴잉스를 멋지게 눈앞에 보여준다. 그 속에 속속들이 들어 있는 악기나 보컬들의 위치와 움직임들도 현란하게 펼쳐진다. 흔히 외트퍼피루가 보여주는 치밀한 음상표현과 달리 극히 투명하면서도 그다지 긴장하거나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점이 루멘 화이트의 장점이 된다.

캐롤키드의 <When I dream>에서 도입부의 기타울림은 매우 풍부하고 디테일이 대단히 선명하다. 흔히 울림거리는 기타의 공명음을 끌어내기 위해 많은 스피커들이 비저위할 때가 있지만, White Light는 중저역이 부풀어지며 울림거리는 현상이 없다. 리스닝 환경의 요인도 있겠지만, 인클로저 설계와 댐핑 소재를 제거한 덕분에 굳이 더 거리는 깨끗한 울림을 뽑아준다. 캐롤키드의 의복소리는 Linn 녹음 특유의 도통한 중의 의안정감과 온기가 조금은 빠지지만 명징하고 또렷하며 청명한 울림으로 재현된다.



한편 미네소타 심포니의 <전야 회의 그림>에서는 안으로 넓게 펼쳐지며 울림이 좋은 콘서트 홀을 만들어낸다. 현의 움직임들에서 자연스런 울림이 살아나며 첼로나 베이스 그리고 바이올린군의 대조적인 음색이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관악군의 변질도 시원스럽게 펼쳐진 음색의 변화에 굳이 더 거리는 없으며 대단히 깨끗하고 투명한 관의 울림이 펼쳐진다. 무엇보다도 팀파니와 같은 초저역 재생은 이 스피커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선명해질 수도 있었지만, 세라믹 유닛과 소구경 우퍼에서 예측했던 대로 대단히 빠르고 깔끔이 떨어지는 정확한 저음을 들려준다. 중반하며 앙갓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중압감 높은 저음이 아니

다. 키포어를 그리거나 과도하게 울어지지도 않는다. 물론 이 부분에는 Gryphon과 같은 강력한 드라이브 능력이 도움을 준 것이 주요했을 수도 있지만, 레퍼런스 모니터를 추구한 스피커답게 90dB라는 여유 있는 감도와 댐핑제를 얹어버린 순수한 인클로저의 설계(특히 게트벤브와 같은) 덕분에 이런 저역의 재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이지적인 분위기에 에미넴이나 프로디지의 테크노를 걸면 어떻게? 무명도와 디테일이 높다는 점이 다소 피곤하고 산만한 것 같았으며 결과는 반반으로 갈릴 것 같다. 먼지 깨끗함과 투명도는 온갖 난잡한 사운드에서 찾아보기 힘들던 디테일들을 남김없이 다 끄집어낸다. 그리고 소리의 계수가 점점 많아져도 풍치거나 산만해지지 않고 대응량으로 올려도 제어력을 잃는 법이 없다. 그러나, 글업의 열기를 느껴려는 테크노 댄들이라면 온몸을 흔들기 보다는 스텐이나 목을 슬쩍슬쩍 흔들 정도의 열기만이 전해져 올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가격에 대해 그만큼 가치를 되돌려 주는가? 겉으로만 본다면 일반 플로어스탠딩 스피커 사이즈는 의구심만 불러올 뿐이고 멋진 마감이 고급스러워 보여도 음질이 진짜로 고급스러울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고 풍습이거나 빈티지를 좋아한다면 너덜거리는 50년전 Tannoy 유닛을 찾아 여행을 떠나길 권하며, JBL 애호가라면 K238600으로 멀티채널에 도전하는 편이 좋다. 그러나 이 두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하이엔드 스피커의 등장에 기립박수를 보낼 만하다. 딱 두 단어만으로도 투명 화이트의 존재가치는 온갖을 하고도 남는다. 바로, 깨끗함과 투명함이다.



White Flame(ED)
White Light(위)